

*Begin Again, Because God Begins Again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낙담으로 고통 받는다면,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낙담은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이런 종류의 낙담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1)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에 좌절하고, 2)누군가는
올해를 돌아보며, “내가 했던 일로,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목소리이고; 3) “ 집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그것은 과장이지만, 무력감은 의미
있는 인간 접촉의 결핍을 가리킵니다.

- 지난 3주 동안의 주제는 *Begin Again* 이었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 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http://thejustmeasure.ca/2020/12/06/begin-again/>);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을 도울
계획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12/13/begin-again-go-out-of-yourself/>); 더 많은 축복이
올것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12/20/begin-again-more-blessings-are-coming/>)!

다시 시작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하느님께서 항상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다시 희망의
말씀(창세기3:15)으로 시작하셨고,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느님께서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분께서는 더 많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어길 수
없는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 성탄 전야의 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대이다”(마태1:1, 17). 내가 2년 전에

언급했듯이(<http://thejustmeasure.ca/2018/12/25/when-frustrated-remember-the-big-picture/>),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각 글자마다 숫자를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E	F	G	H...
1	2	3	4	5	6	7	8...

그러나 히브리어로, 그들의 알파벳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A	B	G	D	H	V	Z	Ch...
1	2	3	4	5	6	7	8...

자, 구약성경의 히브리 원문에서는 모음들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David)이라는 이름은 DVD입니다. 숫자적으로 4, 6, 4입니다. 이 숫자들을 합하면 14가 됩니다! 복음서 작성자는 예수가 새로운 다윗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느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 7년 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angelus/2013/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131215.html).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교황이 “예수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Jesus of Nazareth: The Infancy Narratives*, 56).

성탄절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느님께는 세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1) 복음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 1:23). 첫 번째 자질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화가 나있거나 좌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http://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homilies/2007/documents/hf_ben-xvi_hom_20071224_christmas.html).

2) 그분의 새 출발은 점잖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실 때, 그것은 보통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3) 하느님께서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탄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1-12). 여기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몹시 화가 난 적이 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시도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노, 쓰라림 또는 자존심이 “다 필요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네 가지 결과를 살펴봅시다:

- 1)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낀다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난 것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단지 현재를 더 좋게 만듦으로써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나간 죄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는 구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속죄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 예를들어,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러번 말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싶나요: 매번 새로운 죄? 우리가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죄를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는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들에게 사악한 눈빛을 보낼 것입니다.^
 -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원망으로 과거 속에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용서와 자비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구의 한 자매가 제게 ‘다시 시작’의 주제를 묵상한 후 관계 치유를 위해 손을 뻗었다고 말했습니다.
- 2)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탄 제 2 독서에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1: 1-2).라고 쓰여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을 완전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의 아들, 하느님을 직접 보냈습니다.
 - 한번은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 어떤 나를 학대하는 남자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학대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언어와 감정적인 학대였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심지어 그를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그를 떠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그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3)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의심을 정복합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5년 전 부활절에 말했던 다음과 같은 실화를 결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15/04/05/20150405-god-makes-scars-into-stars/>). Jeanne

Condon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24살이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을 때 나는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며칠 동안 고민과 심혈을 기울이며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미래와 그들의 선물때문에 고통의 눈물로 울기 시작하시는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몇초 후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아빠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진, 우리는 이 상처를 별로 만들거야!’였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안도와 감사함이 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선하신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진의 아기의 아버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 대니를 낳았고, 그녀는 “나는 마음 속으로, 단지 ‘우리 둘’뿐이고, 이제 어떤 남자도 내 곁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어느날 그녀는 동네 카메라 샵에 갔고, 가게 매니저인 브라이언은 여느 때처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를 우연히 만났고 그는 쉬는 시간에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브라이언에게 9개월 된 아들이 있다고 말할 때, 브라이언은 잠시 말을 멈추고..그리고 ‘그래’라고 말했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카톨릭 여자를 찾기 위해 몇년을 기다려왔었습니다!
 - “두달 후 브라이언에게 대니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정확한 말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였습니다. 그 말은 ‘나와 결혼 해 줄래?’라는 말을 제외하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어서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소녀는 결혼해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결혼 25주년을 8명의 자녀와 함께 축하합니다.”
- 4)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고립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접촉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압도당할 정도로 고통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전화 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거리를

유지하며 산책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안전을 유지하면서 영적, 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 우리 교구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해결책은 1월 6, 7 그리고 9일에 시작하는 알파 프로그램입니다. 알파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소개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사, 25분짜리 세계족안 수준의 비디오, 그리고 토론.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알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파는 우리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하고, 비판하지 않는 환경에서 나누는 의미있는 대화입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은 영어로, 목요일 밤은 중국어로 되어있습니다.
- 최근에 참여한 사람의 1분짜리 간증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시작하셨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여 "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녀의 뱃속에 잉태되도록 허락해 주신 마리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느님께 기쁨의 "네"를 드릴 수 있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조금 열려 있다는 뜻의 '좋아요'를 그분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자마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한계 다다랐을 때, 감정적인 수준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를 격려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 하신다는 것입니다.
- 성탄 축하합니다!